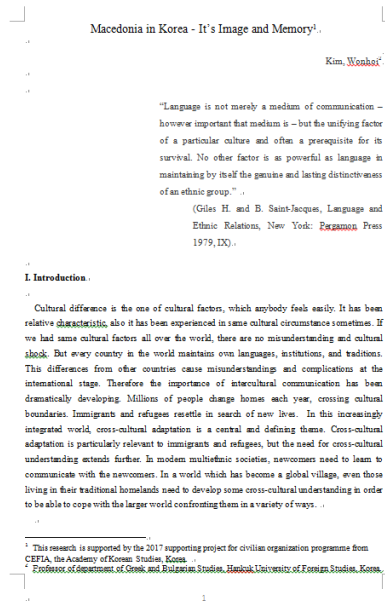


## 2017 한국바로알리기 민간단체지원사업 결과보고서

사업명	제5회 마케도니아국립대학교 '바른 한국 알리기 심포지움과 한국문화 주간'
사업기관	마케도니아 국립대학교 인문대학(Faculty of Philology, Ss. Cyril and Methodius University, Macedonia)
사업책임자	Maja Bojadjevska
사업기간	동의서제출일로부터 ~ 2017.11.30
사업비	금9,000,000원(금구백만원정)
사업진행현황	<p>1. 개최기간: 2017년 6월 19일(월) - 7월 2일(일) 연수기간 중 개최</p> <p>2. 개최장소: 마케도니아대학교 오흐리드(Ohrid) 연수원</p> <p>3. 행사내용: 제 5 회 마케도니아국립대학교  "바른 한국알리기 심포지움과 한국문화 주간"</p> <p>*학술 및 한국 홍보 행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제: 마케도니아에 심는 바른 대한민국 이미지 (한국학 전문가가 학술논문 발표 및 소개행사 진행)</li> </ul> <p>*한국문화시연 및 체험행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문화 알리기 프레젠테이션</li> <li>- 한국음식 체험</li> <li>- 한국어 익히기 행사</li> <li>- 한국문화 및 독도 알리기</li> <li>- 한국영화와 K-POP 공연 방영</li> <li>- 한국전통 기념품 전달 및 홍보</li> <li>- "Loving Korea" 네트워크 만들기</li> </ul> <p>4. 기타사항</p> <p>마케도니아 학생들(마케도니아대학교에서 제 2 외국어로 한국어를 학습하는)과 해외에서 마케도니아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이 본 행사의 진행요원 역할을 하면서 한국문화가 좀 더 친밀해지고, 마케도니아와 해외에서 한국학 연구와 전파의 전령역할을 하도록 참여시켰다. 아울러</p>

상기 기간 동안 마케도니아 오희리드에서 열리는 XLIV International Seminar on Macedonian Language, Literature and Culture 에 참여한 김동연 학생(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 그리스-불가리아학과 전공 학생)은 현지 홍보를 담당하고 각종 한국문화 시연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.



<사진자료: 학술세미나 논문 발표와 강독회>



<사진자료2: 한국문화 알리기 행사 사진>

<p>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</p>	<p><b>1. 마케도니아에서 한국 홍보 및 한국학 연구의 기반 마련</b></p> <p>구 유고연방에 속해있던 마케도니아는 연방 해체 후 1991 년부터 독립국가의 길을 걷고 있다.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한국과의 관계가 점점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홍보와 한국학의 저변확대, 발전은 필수적인 요소이다. 본 사업은 다양한 자료를 통한 주요국가에 대한 한국 홍보이며, 현지 학자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. 향후 이 사업은 마케도니아학자들의 한국학 연구에 지속적인 붐을 조성하고, 적극적인 홍보, 연구 활동의 시초가 될 것이다. 특히 현지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, 독일, 프랑스, 그리스 등 외국인 학자들과 학생들에게 올바른 한국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. 총 100 여명 이상의 마케도니아, 그 외 국가의 전문가들에게 한국이 올바르게 홍보되었고, 한국문화가 알려졌다. 특히 한글과 독도문제 등이 퀴즈형식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홍보되었다.</p> <p><b>2. 한-마케도니아 문화 간 의사소통과 교류 활성화에 기여</b></p> <p>마케도니아에서 한국 홍보와 한국학 교육과 연구 기반조성은 향후 한국의 마케도니아 진출과 마케도니아의 한국으로의 진출이라는 쌍방향적 소통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. 따라서 본 사업과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된 마케도니아와 한국 간의 문화 간 소통 전략을 문화홍보 면, 언어교육 면, 정치경제외교적 측면, 사회적 측면 등에 적절하게 이용한다면, 가장 효율적인 국가 간 교류와 발전의 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.</p> <p><b>3. 한-마케도니아 연구 전문가양성 및 &lt;한국문화알리기&gt; 지속기반마련</b></p> <p>마케도니아대학교 인문대학에서 현재 한국어는 &lt;제 2 외국어&gt; 로서 교육되고 있다. 본 행사와 같은 학술 및 홍보행사를 통하여 동일 기관에서 한국어 전공이나 한국학과 신설 등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. 역으로 현지 사업수행을 기점으로 국내 대학에 마케도니아 관련 교과목 개설이나 학과신설 등 마케도니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. 이것은 장기적으로 &lt;한국 문화 알리기&gt;의 지속적 발전과 긴밀히 연계될 것이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